

# ‘가야 이야기 전북에서 듣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특별전 ‘전북에서 듣는 가야 이야기’를 24일부터 연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굴·조사된 전북지역 가야 유적을 총망라한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한 전북지역 가야는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 자리했다. 가야계 소국들의 경우 백제의 중앙과 교류·교역하는데 있어 이곳의 간선교통로를 통해야 했다.

특히 전북 동부(남원·무주·순창·완주·임실·장수·진안)지역을 무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간선교통로의 관할 및 철산지의 장악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곳에는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이 같은 흔적은 1982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을 시작으로, 최근의 장수 동촌리 고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전북도내 유적 총망라

5부 구성... 전시는 8월 26일까지

분군까지 수많은 유적이 발굴·조사되면서 이 지역 가야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전북에서 듣는 가야 이야기’는 박물관이 전북지역 가야사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전시. 지난 1500년 동안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던 전북지역 가야의 역사를 조명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해 보여준다. 1부 ‘전북의 가야, 모습을 드러내다’에서는 전북지역에 가야 문화가 드러나는 계기와 그 위상을 살펴보고, 전북 동부지역의 인문·

지리적 환경을 보여준다. ‘전북의 가야와 그 이웃들’에서는 5~6세기 한반도 남부지역의 정세를 소개한다. 전북의 가야가 대가야·백제·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 및 발전할 수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세력을 형성하다’는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수백여 개의 무덤을 만들었던 전북 동부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남원뿐만 아니라 진안, 임실, 장수 곳곳에서 확인되는 무덤의 출토품을 보여주고 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청자 천계호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출토 청동거울

‘산과 강을 아우르다’는 백두대간을 넘어 들며 때로는 이웃 나라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들만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였던 전북지역 옛 가야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기존 영남지역 가야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던 중국 청자와 금동신발 등에서 영남지역 가야 세력과 차별성을 볼 수 있다.

마지막 5부 ‘흔적을 남기다’에선 6세기 이후 전북의 가야가 백제와 신라에 의해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지역 가야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활발한 지

표조사 결과로 약 70여 개소의 봉수 유적과 약 15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가야와의 연관성이 주목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가야사 복원이라는 국책사업이 대두되면서 가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가야 유적을 종합하는 첫 전시라는 점에서 관심이 기대된다”며 “다채로운 ‘가야 이야기’를 통해 전북의 가야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시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정해은 기자

## 탈 서구적 시각서 바라보는 아시아 현대미술

### 오늘 도립미술관서 ‘PLUS, 숨’展

전북도립미술관은 ‘PLUS, 숨’전을 24~29일 갖는다.

전시는 미술관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도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 서구적인(주체적인) 시각에서 아시아 현대미술을 바라보면서 교류·연대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PLUS, 숨’은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들과 중국 베이징 송창의 미술가 11명이 함께하는 국제교류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이어 올해 10월에는 중국 베이징 송창에 위치한 국중미술관 초대로 ‘숨, NETWORK’전이 열릴 예정이다.

전북의 초대미술가로는 김성수·박정경·서완호·이승희·지현·한정무가, 중국의 초대미술가로는 장동홍·센징둥·츄이준·피아오광시에·미동민이 참여했다.

이들 작가들은 정치적 혼란과 개인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아시아를 예술로 표출한다. 서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아시아 현대미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전시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교동미



술관에서는 ‘송창과 중국 현대미술의 힘’을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장동홍 길림예술대학 총장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특강은 30,000여 명의 미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송창예술촌과 중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미술관 관계자는 “전시와 특강, 전부와 송창간의 인적교류를 통해 전북미술가들의 창작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 쇼케이스 4월 상영작 ‘빨간 벽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전주 쇼케이스’ 4월 작으로 ‘빨간벽돌’을 선보인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상영작인 주현숙 감독의 ‘빨간벽돌’은 30여 년 전 구로 동맹 파업을 일으킨 사람들을 통해 ‘순간의 선택’을 이야기한다. 작품은 ‘그 순간’을 마주했던 이들의 마음속 풍경을 들여다본다.

이 영화에 대해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는 “흔히 나이든 세대들이 아랫세대에게 저지르기 쉬운 수직적 교화관과는 가장 거리가 먼 수평적 접근을 취한다”면서 “삶의 실존적 선택들은 체면의 두께와 상관없이 존엄하고 절박할 수 있다는 것을 낮은 목소리로 실력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25일 상영이 끝난 후에는 영화를 연출한 주현숙 감독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주 감독과 영화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박병하 ‘묵죽’, 강암서예대전 휘호대회 대상

제19회 강암서예대전 휘호대회 대상 수상자로 박병하(53·서울 서초구) 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문인과 부문에 출품한 ‘묵죽’. 또 최우수상에는 양찬호(한문), 송이슬(한문), 윤태휘(한글) 씨가, 우수상에는 박영욱·김수빈(한문), 김찬휘·이승주(한글), 염정례·김은경(문인화) 씨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선은 강성철 씨 등 30명이, 입선은 강동규 씨 등 98명이 차지했다.

강암서예학술재단은 강암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서예문화의 진흥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 매년 강암서예대전 휘호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참신하고 실력 있는 서예인을 발굴해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작금지원금 수여식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전주강암서예관에서 열린다. 대상 1명에 400만원이, 최우수 3명에게 각 100만원씩 300만원이, 우수상 6명에게 각 50만원씩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선 30명과 입선 98명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특선 이상 작품은 5월24부터 30일까지 전주강암서예관에 전시된다. /정해은 기자



박병하 작 ‘묵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